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1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치매관리팀장    조명희 ☎440-2981 • 담당자            권옥연    ☎440-29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치매관리사업, 2년 연속 전국 1위

- ‘치매극복의 날’ 행사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 국가치매관리정책에 발맞춘 지역특화 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질 향상에 기여

인천시의 치매관리사업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최고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됐고, 인천광역시치매센터는 장관상과 함께 상금을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해 매해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2021년 사업실적과 2022년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지역 치매관리 조정기관으로서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연구,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 7개 영역에 대한 정성 및 정량평가가 이뤄졌으며, 서면평가와 함께 평가위원단이 방문하는 현지평가도 진행됐다.

인천시와 인천광역치매센터는 정보통신기술(ICT)활용 현황조사, 종사자 교육요구도 조사 등 연구통계 자료집 발간을 통한 치매관리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치매복스 앱 개발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전국 최초 치매친화영화관 운영 ▲초로기 치매환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인간 존중 돌봄기법 휴머니튜드 도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사업을 수행하고자 시-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한 노력들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돌봄 특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